

테마칼럼

책과 세상

신재생에너지

문화 상상력

도시와 인간

시설

거짓말에 의전 실수까지... 광주시 왜 이러나

광주시가 최근 잇단 허위 사실 발표와 의전 실수로 행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선정·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을 마치 선정·확정된 것처럼 발표하는가 하면 타기관과의 업무 협약서 서명만에 전임 시장의 이름을 써놓는 실수를 저지른 등 행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는 지난 5일 "환경부가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로 광주시 등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영광과 서울, 제주 등 3개 도시만 선정할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는 올해 상반기 중에 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다. 시가 시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셈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월 상습정체 구간인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용봉IC 구간의 상행선 갓길을 오는 7월 말까지 3차로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주체 기관인 도로공사 측은 공사 시기가 주체에 대해 전혀 협의된 바 없다며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그 후 시는 이 문제에 대해 가타부타 말이 없는 실정이다.

광주시 행정의 허술함은 지난 5일 한국수자원공사와 MOU 체결에서 절정(?)을 이룬다. 협약서에 박광태 전 시장의 이름이 적혀 있어 허둥지둥 협약을 교체하는 '있을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한수원 관계자들이 시장 이름까지 오락가락한 시 행정을 어떻게 보았겠는가. 부끄럽고 한심한 일이다.

최근 광주시의 잇단 허위 발표와 실수는 성과주의에 쫓긴 졸속 행정의 표본이다. 시장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식 행정이 공무원들이 업적에만 급급한 결과는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이유가 어디에 있는 시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다. 행정은 신뢰가 생명이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일련의 사태를 예사롭게 넘겨서는 안 된다. 그 원인을 찾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영광원전 방사능 대책, 이대로는 큰일이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물질이 국내에도 검출되면서 영광원전의 주민 대피 범위 확대 등 전반적인 방재 시스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방사능 누출사고 시 주민대피 범위를 원전으로부터 10km로 정하고 있으나 최소 30~40km 이상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후쿠시마 원전 4기가 거의 동시에 폭발할 경우처럼 원전사고는 예측할 수 없기에 최악의 사태를 상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러시아가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대피 거리를 30km로 설정했다는 점에서도 비상계획구역의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다. 현재 영광원전 반경 10km에는 2만5690명이, 30km에는 14만5163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30km에는 영광은 물론 장성과 함평·고창·무안 등 상당수의 지자체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비상계획구역이 원전 반경 10km로 정해진 탓에 10km를 벗어난 영광 이외의 지역에 대한 방재대책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방사능 누출사고 시 바람의 방향과 세기에 따라 시간당 수십 km까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제도 미비로 인해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다.

또한 영광을 제외하곤 인근 모든 지자체에 원전 담당 전문가가 부서가 없어 비상시 대책이 전무한 점도 큰 문제다.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영광 외에는 속수무책이라는 얘기가. 원전 관련 예방교육이나 신속한 조치 등을 취해본 경험이 없어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에 비추어 방사능 대책 부실은 자칫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가 대피 범위를 최소 30km 이상으로 확대하고, 그 반경 내의 전 지자체에 원전 전문가 배치 및 담당부서 신설 등 원전의 방재시스템에 대해 총체적인 보완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원전사고에 '사후약방문'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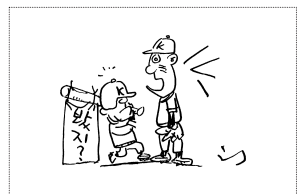
無等鼓

1984년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가운데 레이건과 덩샤오핑(등소평)의 만남이 이뤄졌다. 환할한 키의 레이건이 반갑게 악수를 청하자 150cm의 단구인 덩샤오핑은 일부로 손을 아래로 내밀었다. 레이건은 어쩔수 없이 허리를 굽혀 덩과 악수를 해줬고, 이 장면은 생방송으로 중국 전역에 송출됐다. 12억 중국인들의 자존심을 세워 주려는 '작은 거인'의 당당한 면모를 엿볼수 있는 일화다.

나폴레옹도 키가 작기는 마찬가지였다. 나폴레옹을 묘사한 '5피트 2인치의 키에 코르시카섬의 시골 출신'이라는 표현을 볼 때 157cm 정도로 추정된다. 나폴레옹은 "내 키가 땅에서부터 재면 가장 작지만 하늘에서부터 재면 가장 크다"는 명언을 남겼다.

동서양의 대표적 역사적 거물이 이들의 공통점은 '작은 거인'이라는 별명을 가졌다는 점이다. 작은 거인(Little big man)은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큰 업적

작은 거인



가 인터넷에서 자신의 블로그인 이종범 선수와 함께 그라운드를 누비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손수함도 갖추고 있다. 김선빈의 활약이 시즌 끝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박지성의 평범처럼, 작은 거인의 활약에서 희망을 갖는 젊은이들이 많은 까닭이다. /정필수 사회부차장 bungy@

생명의 자궁, 갯벌

갯벌을 찾는 도요새와 노랑부리저어새, 황새를 바라보며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그네들의 처지를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갯벌을 거닐다가 꼬막과 동족과 농게, 방게라도 발견할라치면 생명체의 신비로움에 아이들처럼 환호성을 지르기도 하고, 밀물 따라 갯벌까지 올라온 도다리나 숭어, 불락 등을 어부가 잡아 회로 올려주면 흐뭇한 표정으로 '자연산이 최고야'를 외치다가도, 그 숭고한 생명체들의 삶의 터전인 갯벌을 죽이는 조력발전소 반대 집회에는 냉담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갯벌에 핀 한 송이 갯메꽃을 보며 희열을 느끼는 순간조차도 그것을 나 개인의 행복 추구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건 아닐까. 우리는 지금 자연과 문명의 관계에 대해 심각한 개념의 혼란을 겪고 있다.

인간은 자연을 맘대로 파괴하고 없애버릴 수 있는 자연의 지배자가 결코 아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게 과연 문명이고 발전인가. 인간 역시 갯벌의 새나 고기나 조개처럼 자연의 구성원 중의 하나일 뿐이다. 우리에게 어떻게 그네들의 삶의 터전을 마음대로 파괴할 권리가 있던 말인가. 그 점을 우리는 망각하며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다.

갯벌을 육지로 만드는 대규모 간척 사업이 시작되기 전, 남한의 갯벌 넓이는 4000km<sup>2</sup> 정도였다고 한다. 약 100년 만에 8천 년 동안 만들어진 갯벌의 40%를 없애버린 것이다.

나머지 60%의 운명도 어찌될 지 장담하기 어렵다.

앞의 책을 보면 갯벌 매립으로 돌아온 피해를 일찍이 깨달은 미국은 갯벌 보호를 위해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법과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을 정도이다.

나라의 역사가 '간척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네덜란드조차 바다에 설치한 거대한 댐으로 인해 오히려 수질이 나빠지고 생물들이 때죽음을 당하자, 평소에는 바닷물이 드나들게 하고 폭풍해일 때만 바닷물을 막을 수 있는 '폭풍해일 댐'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댐을 만드는가 하면, 조상들이 간척한 농지를 다시 갯벌로 되돌리는 일을 한창 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남한과 북한의 갯벌을 합한 정도의 넓은 갯벌을 갖고 있는 독일은 벌써 20년 전에 모든 갯벌을 아예 국립공원으로 지정했다. 독일에서는 갯벌에 들어가 소리 지르며 장난치고 개의 구멍을 쭈셔 대거나 뱀을 파서 조개를 잡는 일 등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한다.

바닷물이 드나드는 넓은 들, 갯벌은 우리 세대에도 변함없이 수많은 동물과 식물을 잉태하는 '생명의 자궁'으로 살아남아 이어왔던 8천년의 세월을 변함없이 이어가야 하리라.

(사계절출판사 대표)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고칼럼



지장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자업자득 자작자수'(自業自得 自作自受)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즉 "자신이 받고 있는 과보는 자신이 지어서 자신이 받는 것이다"라는 뜻이다.

요즈음 세계는 온통 지진과 방사능, 해일, 때아닌 폭설, 폭우로 인하여 아수라장이 되었다. 게다가 자유를 갈망하는 민중의 폭발이 겹쳐 지구 곳곳이 성난 불똥들의 모습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사정에 자연마저 무심하구나 싶다.

그러나 조용히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자연의 고마움을 모르고

편한 점이 많았지만, 결코 불행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사람과 사람사이엔 인정의 강이 철철 흘러 넘치고, 이웃과 이웃 사이엔 화기애애한 정감이 넘치던 시절.

이웃집 모내기라도 하는 날이면 잔칫집처럼 온 동네가 왁자지껄하며 웃음바다를 이루며 막걸리 나누던 어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그리운 요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는 너무나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되어서 흥미 없었지만 우리는 그동안 알만 보고 달리기만 했던 먼 앞 목표지점도 정하지 않은 채 오

풍요속의 빈곤

'개발과 편'이라는 인간의 이기적 욕망 아래 함부로 파헤치고, 끊어내고 인간들의 욕망에 맞추어 변화시켜 놓았다.

지금부터 40~50여년 전 나의 고향 공주 시골에는 꼬불꼬불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따라 12번의 돌 징검다리를 건너면서, 6km를 걸어서 지금은 명칭이 바뀐 초등학교에 다니곤 하였다.

장마철이 되어 물이 불어나면 종종 학교를 결석해야 하는 불편이 많았던 시절, 학교에서 나누어 주는 강냉이 죽을 받아먹고, 집에 돌아올 때면 빈 도시락에 다슬기 가득 잡아서 저녁이면 모깃불 피워 놓고, 멍석을 마당에 깔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이야기 나누며 다슬기 빼먹던 시간이 너무 그립다.

경제적으로는 지금보다 빈곤하여 불

지 한치 앞 눈에 보이는 이익만을 보면서 100m 질주하는 선수처럼 살아왔다. 그 질주는 지금도 멈추려 하지 않는다.

생각 없이 먹이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는 산돼지보다는 자리를 지키며 생각하는 갈래가 되어보자.

이제 한뼘쯤 삶을 뒤돌아 보는 여유를 갖자고 원호스님의 발심수행장을 소개하면서 마치고 싶다.

"배고프면 나무열매를 먹어서 그 주인 창자를 위로하고 갈증 나면 흐르는 물을 마셔 목마른 생각을 없지니라.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소중히 길러도 이 몸은 결국엔 무너지고 좋은 옷을 입어서 지켜 보호하여도 목숨은 반드시 마칠 날이 있느니라."

(무등산 증심사 주지)

'가족병력' DB화 해야 암 예방 효과적

의료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만 암은 여전히 우리에게 무섭고 두려운 병이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병은 예방이 최선이다.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운동을 하거나 식습관을 건강에 이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다면 가족력, 즉 질병의 유전적 발생 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암은 유전적 요인이 아주 크다. 부모 중 암에 걸린 적이 있거나 그 선대에 특정 암에 걸린 적이 있으면 자녀에게

유전돼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따라서 국민건강관리체계를 재정립해 가족력에 의한 암예방 차원에서 암으로 사망했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부모와 그 자녀에게는 해당 병의 내역을 통보해주고 정기적인 검사를 받게 해주어야 한다.

검사비와 본인이 내도록 한다 하더라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같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상시관리체계를 만들고 본인들이 최소한 2년 단위로 해당 암에 대한 조직 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

▲노정원·광주시 북구 누문동

기고



이해구

세계보건기구(WHO)는 매년 200만 명 이상이 성인병 등으로 사망하고 운동부족 원인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3000만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인간은 건강하게 평생을 살아갈 원하고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값비싼 스포츠 클럽을 찾아가 매일 흥건히 땀방울을 쏟아내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은 마음만 있을 뿐 정작 운동에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포기할 것은 아니다. 골프·테니스·마라톤 등 대부분의 운동이 더 나은 건강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

7%)에 이어 2번째로 높은 54.2%로 국민의 절반 이상이 걷기 운동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동호인이 가장 많이 증가한 운동 하면 당연히 골프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다른 운동에 취미를 가진 지역민도 많다. 승마를 즐기는 이도 있고, 테니스 같은 격렬한 운동을 즐기는 지역민도 있다. 이처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운동이 유행처럼 번지는 동안에도 꾸준히 인기를 얻어온 종목이 바로 걷기다. 걷기에 매력을 느낀 지역민도 하나 둘씩 늘고 있다.

걷기를 좋아하는 금융계의 모 회장은

걷기만한 운동 없다

도, 최상의 길도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이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운동은 조깅도 마라톤도 아닌 바로 걷기 운동이다. 매일 30분씩만 적당한 속도로 꾸준히 걸으면 걷기의 효험을 바로 느낄 수는 없지만 우리 몸에 좋은 예방 역할을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바쁜 현대인의 일상 속에서 시간을 내어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은 어렵다. 자가용 없이 출퇴근이 가능하면 걸어서 출퇴근하기, 점심식사는 걸어서 가기, 사무실은 엘리베이터 타지 않고 계단으로 가기, 저녁 식사 후 가족과 함께 산책하기 등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2010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최근 1주일 동안 1회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이 42.5%였다. 전남도의 경우 주 5일 이상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이 서울시(55.

시간만 주어진다면 걷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차창 밖으로 걷기 좋은 길을 발견하면 주저 없이 차에서 내려서 걷는다. 걷기는 그의 유일한 운동으로 지금도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꾸준한 걷기는 적은 운동량으로도 건강을 꺾을 정도로 개선할 수 있다. 활기찬 걷기는 강한 운동에 버금갈 정도로 우리 몸에 수많은 혜택을 가져다준다.

결론적으로 운동의 강도가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걷기를 계속하느냐가 중요하다. 걷기는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관절염, 우울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걷는 것이야말로 손쉽게 어디서나 실천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이다. 볼 새씩이 돌아나오면 걷고 싶은 욕망이 돌아오듯 걷기 운동을 하면 걷기 운동을 하다가도 건강도 챙기길 바란다.

(전남도 보건한방과장)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錫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李庚完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일내선))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매체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다 시 진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 신 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